

石谷 李奎峻의 學問과 哲學的 指向

신상구*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나는 나의 학문을 하겠다, 格物致知
3. 변해야하고 혁신해야 한다, 愛
4. 만물을 생성하는 道, 仁
5. 仁恕로 만들어가는 세상, 萬物同體
6. 理와 氣, 性과 情을 포함한 개념, 心
7. 나오는 말

[국문초록]

석곡은 조선의 마지막과 대한제국의 첫출발을 온몸으로 체험한 인물이다. 망해가는 조선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조선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자각하고, 백성들의 힘든 삶에 대해 마음 아파한 인물이었다.

이 연구는 석곡이 살았던 시기를 관통하는 어려움에 주목하고, 유학이 지향하는 앎[知]에 대한 물음과, 문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格物致知에 대한 석곡의 견해를 우선 살피고, 다음으로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키워드로 내세우는 사랑[愛]의 가치와, 만물을 생성하는 도리로서의 인의 가치, 그리고 석곡이 주장하는 만물동체의 세상과 理와 氣, 性과 情을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心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석곡의 학문과 철학적 사유는 주로 『石谷散稿』와 『石谷心書』에 집중되어 있다. 석곡의 萬物同體說이나, 格物致知, 그리고 心에 대한 견해는 모두 이들 책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

석곡의 理氣論이나 心論은 格物致知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낸다. 석곡은 격물치지에 대한 주자의 견해를 부정한다. 어려운 사물을 연구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견해를 지키고 자득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른 것임을 말하였다. 석곡의 이러한 생각은 격물치지가 물을 닦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득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격물치지에 대한 석곡의 인식은 그의 학문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조교수, sgshin@uu.ac.kr

석곡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학문에 대한 부정과, 만물을 생성하는 道로서의 仁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만물동체로 나아가고, 만물동체는 이와 기를 성과 정을 포함하는 통섭적 개념으로서의 心과 맥락이 닿아 있다.

주제어: 格物致知, 愛, 仁, 萬物同體, 心, 石谷心書, 心書附說, 石谷散稿.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들은 학문을 사회에서 나 자신의 위치[신분]를 높여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곧 '나를 Shift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한다. 이것은 비단 오늘의 우리만이 아니라 고금을 막론하고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문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공자의 제자라 해도 이러한 인식에 예외는 없었다. 공자 사후 공자 학단을 이끌어 갔던 중심인물인 자장도 공자에게 '벼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學干祿)'고 하였으니, 학문을 세속적인 명예와 함께 경제적인 여유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이란 것이 누구나 질차탁마를 통해 지식을 함양한다고 해서 높은 지위를 얻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공자가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논어』의 첫 구절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힌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으로부터 나를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¹⁾는 학문의 의미와 학문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던진다.

공자는 학문을 학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기쁨[說/悅]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

1) 『論語』 「學而」,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으며, 나아가 이러한 기쁨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자[樂] 했다. 그러면서 학문을 자신의 내적 성찰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남이 알아 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一喜一悲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여겼다.

『論語』의 마지막 구절로 건너가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것은 배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어』의 맨 마지막에는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라 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바로 설 수 없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세상]을 알 수 없다.”라고 적어놓았다. 곧, 앎의 구체적인 목표가 ‘天命’이고, ‘禮’이고, 말[言]을 아는 것이고, 이는 나의 존재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과 실천을 위한 모색의 과정이자 자기완성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자의 학문은 앎에 대한 추구, 모색, 갈증이 었다.

본고가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석곡 이규준도 예외는 아니다. 석곡은 조선의 마지막과 대한제국의 첫출발을 온몸으로 체험한 인물이다. 외부로부터의 근대²⁾를 경험한 인물이다. 망해가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조선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자각하고, 그 속에서의 백성들의 힘든 삶에 대해 마음 아파한 인물이었다.

본고는 석곡이 살았던 시기를 관통하는 어려움을 주목하고, 유학이 지향하는 앎[知]에 대한 물음과 문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格物致知의 의미와 석곡이 생각하는 ‘변화와 혁신의 키워드’인 사랑[愛], 그리고 心學에 의한 萬物同體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석곡의 학문과 철학적 지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나는 나의 학문을 하겠다, 格物致知

2) 근대는 내부로부터의 근대와 외부로부터의 근대를 말할 수 있다. 내부로부터의 근대는 선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중인계급의 과거진출, 동학창도와 인간평등에 대한 인식 등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인식의 흐름을 고려한 것이며, 외부적인 근대는 대한제국의 성립과 일제치하에서의 물리적인 개화를 말한다.

유학에서는 ‘사람은 덕성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러한 사람의 삶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담보하는 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을 통하여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특히 유학에 있어서 格物致知는 학문과 수양에 있어 사물의 현상 속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앎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문방법론이다. 그래서 『大學』에서 “옛날에 밝은 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안부터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아는 것을 극진히 해할 것이니, 아는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히 하는데 있다”³⁾고 하여, 나의 마음[心]에 있는明德(밝은 덕)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을 格物에 두었다.⁴⁾ 이는 무엇보다 격물은 치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며, 격물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앎, 참된 앎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주자의 『대학』 〈格物致知補傳〉에서의 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앎을 지극히 하는 것이 격물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앎이 지극히 하는 것이 사물을 접하여 그 이치를 궁구하는 데에 달렸음을 말한 것이다. 무릇 사람 마음의 영명함은 본래 지각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없고, 세상의 존재물은 이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 없다. 다만 이치에 대하여 궁구치 못한 까닭에 앎에 미진한 면이 있게 된다.”

세상의 이치를 다 갖춘 존재물, 마음에 영명한 지각을 갖추고 있으나 이치

3) 『大學』, 經1章,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脩其身 欲脩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4) 格物은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안다는 것이며, 致知는 내 마음 안의 이치와 사물의 이치가 상호 조응이 되어 나의 앎이 지극해 진다는 것이다.

에 궁구히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주자는 궁극적인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좀 더 격물에 다가가야 한다고 하여 격물을 강조한다.

석곡도 ‘격물치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다. 肅明 李浚久와의 서신의 내용이다.

“보내오신 편지에 “격물치지의 뜻을 어찌 대학장구와 대학혹문의 글에서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의 物을 궁구하고 내일 하나의 理를 궁구하여 융회하고 관통함에 이르러서는 절로 모든 물의 이치에 환히 알게 되니, 이치를 환히 알게 되면 성의·정심·수신·제가 절로 하나의 일이 됩니다.”라고 말하셨는데, 이는 참으로 저의 오래된 의심입니다. 반드시 모든 物의 表裏 精粗에 대해 환히 알게 된 뒤에야 성의·정심·수신·제가를 할 수 있다면, 성인의 도는 오직 上知者만이 배울 수 있고, 보통사람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모든 물의 表裏, 精粗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러한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 수신은 쉽고 공리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학문을 할 적에 어찌 쉬운 것을 따르지 않고 먼저 어려운 것을 찾았겠습니까? 공자께서 무슨 까닭으로 낮고 쉬운 것부터 배워 깊고 오묘한 이치에 도달한다고, 인간의 일에서 배워 천리를 통한다고 하셨겠습니까?”⁵⁾

이글에서 석곡은 격물치지에 대한 주자의 견해를 부정하고 있는데, 『經髓三篇』에서도 ‘격물치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석곡은 “物이란 物有本末之物”⁶⁾이라고 하여, 明德의 德, 親民의 民이 物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德을 ‘心得之曰德’⁷⁾이라고 하였으며, 格은 “正而至也”⁸⁾라고 해서 ‘바르고 지극한 것’이라고 하였다. 곧 格物이란 마음이 얻어 아는 것

5) 『石谷心書』, 〈心書附說, 重答李肅明〉, “來書云 格物之義何不細察於章句或問之文乎 今日格一物 明日格一理 以至融會貫通 則自有衆物之豁然 及其豁然 則誠正修齊自是一項事 此固賤生之宿疑者也 必待衆物之表裏精粗 無不豁然後 乃有以誠正修齊則聖人之道 惟上知者可學 非衆人之所及也 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者 吾聞其語 未聞其人也 (...) 修身易而窮理難也 古人爲學何不從其易者 先求其難者乎 孔子何故曰下學而上達”

6) 『經髓三篇』, 〈大學〉, “物即 物有本末之物”

7) 『經髓三篇』, 〈大學〉, “心得之曰德”

8) 『經髓三篇』, 〈大學〉, “格正而至也”

을 바르게 하는 것⁹⁾이고, 致知에서 致란 行之至라고 하여, 致知란 바르게 안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¹⁰⁾이다. 그리고 석곡은 증용의 글을 인용하여 격물치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격물치사는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명확히 분별함이며, 치지지는 독실이 행동함”¹¹⁾이라고 했다.

석곡의 이러한 견해는 ‘格物而後致知, 곧 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인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견해와 다르다. 이는 ‘致知의 주체인 내가 물을 닦아가고, 물을 확연히 알아감으로서 앎이 지극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천하의 물을 끝까지 연구하려 한다면 종신토록 궁구하여도 날이 부족할 것이니 성의와 수신을 어느 때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존자께서는 上知者이십니까? 만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여 환하게 알지 못함이 없으십니까? 능하시다면 그렇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행하기 어렵고 쪽 이어가기가 어려운 학문을 좇는 것 보다는 쉽게 알 수 있는 학문을 좇음이 훨씬 낫겠지요.”¹²⁾

격물공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며, 격물공리에만 마음을 쏟게 되면 성의와 수신을 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곧 실천과 실행을 하지 않고 격물만 하게 됨으로 해서 실천 없는 학문, 사변적인 학문, 현실과 유리된 학문을 할 수 밖에 없게 됨을 말한 것이다.

이에 수백마디의 옛 학설의 꼬트머리만을 잡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지니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태도임을 말한다.

“장차 옛 학설을 좇으려고 한다면 마치 벽 위에서 한 걸음도 걷기 어려운 것 같고 길을 바꾸려 한다면 탄탄한 나의길이 있게 될 터입니다. 이것이 천생이 기

9) 『經髓三篇』, 〈大學〉, “格物者 正其所知之事而擇乎至善也”

10) 『經髓三篇』, 〈大學〉, “致知者 行其所知而至於善也”

11) 『石谷心書』, 〈心書附說, 重答李肅明〉, “博學審問慎思明辨是格物之事也 篤行是致知誠意之事”

12) 『石谷心書』, 〈心書附說, 重答李肅明〉, “若欲窮盡天下之物 則終身窮之 日有不足 誠意修身 何時可行乎 尊者其上知者耶 其能窮盡萬物 無不豁然也 能爾然矣 不爾則與其從難行難繼之學 孰若從易 從易知之學也”

까지 오늘날 유자의 죄인이 되어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 보내오신 편지의 수백마디가 참으로 귀에 익숙한 옛 학설로써 삼십년 동안 사색해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십 오십이 되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니 또 어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견해를 지키고 자득한 것을 지킬 뿐입니다.(…)오늘날 천지가 비색하고 천하가 금수의 세상이 되어서 오직 남을 공격하기에 힘쓰니 (….)”¹³⁾

삼십년 이상을 옛 성현의 말씀을 사색해 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당쟁의 필미만을 만들어가는 것일 뿐이니,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지니고 自得한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임을 말하고 있다.

결국 천하의 否塞과 匪人의 원인은 자신의 학문을 하지 않고 남의 학설만을 좇는데서 비롯됨을 말하고 있다. 『석곡산고』의 〈난간 이규형의 시에 부쳐〉라는 시에서 認得胸中覽物情 마음 속 생각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 물상을 바라보네.¹⁴⁾는 석곡의 格物致知가 물을 닦아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득에 있음을 분명히 말한 것이다.

‘사람의 이치를 분명히 알 경우 물의 이치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격물치지’에 대한 석곡의 생각은 그의 학문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하겠다.

3. 변해야하고 혁신해야 한다, 愛

『석곡산고』에서 석곡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편당지어 서로 원수가 되

13) 『石谷心書』, 〈心書附說, 重答李肅明〉, “將欲從舊聞 則如壁上一步難行 改轍則坦坦有吾家路 此賤生所以甘爲今儒之罪人而不顧者也 (….) 今來書之上下數百言 固皆舊聞耳熟 而三十年 思索不得者也 四十五而不悟者 又何望有悟哉 不如各守己見 (….) 今天地否塞 天下匪人 惟爪牙噬攫是務”

14) 『石谷散稿』, 〈附蘭潤李[圭亨]詩〉, “石谷山人自有名 一生瓢飲志和平 移家卜地桃源靜 隱几修書菊露清 雲邊流水浮埃絕 月下重峰淑景生 晝而耕鑿宵而讀 認得胸中覽物情”

고 위협과 권세로 서로 죽이며”¹⁵⁾, “군주가 된 자가 권세와 이익을 독점하면서 그 변통이 끝이 없고, 종교가 좌우로 당파를 지어 그 혼란함이 끝이 없”¹⁶⁾ 그야말로 “은 세상이 혼탁하게 질그릇 두드리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¹⁷⁾ 혼란기였다고 적어 놓았다.

이러한 혼란기에 석곡은 “(선생께서는) 시대를 아파하고 변화를 관찰하면서 세상구제의 방법을 지니신 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지”¹⁸⁾를 묻는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사람이 아름다운 도리를 잃고, 서로 편당을 지어 원수가 되고, 위협과 권세로 서로 죽이니, 이런 세상에 태어난 선비는 장차 어떻게 해야하는지”¹⁹⁾를 물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고민한다.²⁰⁾

一節千里向誰尋 지팡이 하나로 천리 길 멀리 멀리 누굴 찾아갔나
踏盡青山淺且深 푸른 산 얇고 깊은 곳을 모두 다녔네.
艱危中途聊驗世 위태로운 여정 속에 세상을 경험하였는데
岷洋何處可論心 넓디 넓은 세상 어느 곳에서 마음을 논할 수 있을까?
落地人生皆是客 땅에 떨어진 인생 누구나 나그네인데도
滔天物慾匪斯今 하늘까지 덮은 물욕 오늘의 일만은 아니네
回頭欲問清閑意 머리 돌려 맑고 한가로운 뜻 물으려 하는데
黃鳥三聲在綠陰 피꼬리의 울음소리 깊은 그늘 중에서 들리누나.²¹⁾

세상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한 여행 중에서 석곡은 스승을 찾아가 그가 고민하고 있는 ‘심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답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15) 『石谷散稿』, 〈書上參贊郭侁宇[鍾錫]先生[己酉蟠月]〉, “朋家作仇 齷齪相滅”
16) 『石谷散稿』, 〈附錄, 祭文 同上〉, “及今之日 君主人之專權專利 莫極乎變也 宗教派之右黨左袒 莫極乎亂也”
17) 『浦上奇聞』, 〈浦上奇聞序〉, “有人於舉世混混雷鳴瓦釜之秋”
18) 『石谷散稿』, 〈上參贊郭侁宇鍾錫先生 己酉蟠月〉, “閱時觀變 藏器以待時歟”
19) 『石谷散稿』, 〈上參贊郭侁宇鍾錫先生 己酉蟠月〉, “上失其道(…) 朋家作仇 齷齪相滅(…) 士生此世 當如何”
20) 줄고, 「석곡 이규준의 시문을 통해서 본 학문과 현실인식」,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51, 2015.10. 62면 참조.
21) 『石谷散稿』, 〈行路吟〉.

‘하늘같이 덮은 물욕’을 본다.

물욕에 경도된 유학자, 유학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애롭고 화목한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이었으며, 이러한 모습들이 동서양의 명암의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예수교도들의 말에 세상에 공자의 글을 배우는 자는 사람마다 탐욕스럽고 싸우며, 집집마다 원수로 여기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사람마다 자애롭고 집집마다 화목하니 이는 동서양의 명암과 강약이 현격하게 다르게 된 까닭이다. 어찌서인가? 오늘날 사람들 중에 독서하는 자가 시골에 거처해 있으면 무단(시골에서 지위와 세력있는 사람이 억지로 남을 내리누르는 것을 하다)을 뜻으로 삼고, 관직에 있으면 부극(조세를 함부로 받아서 백성을 못살게 하다)을 예로 삼으며, 오직 당색과 성세가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니 지금 동양의 피폐함과 잔멸됨은 모두 공자 글을 배운 소치이다.”²²⁾

석곡은 분명하게 말한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공자의 글을 배운 사람들의 부도덕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석곡의 비판은 계속 이어진다.

“어떤 것이 문명이고 어떤 것이 현철인가? 시나 부를 읊조리면서 음풍농월하는 것이 문명인가? 理를 말하고 氣를 말하면서 선현들의 그림자나 연구하고 모방하는 것이 현철인가?(…) 혹은 이익에 달려두고 자기의 재능을 팔아서 의리가 모두 무너지고, 혹은 문화를 나누고 당을 세워서 적수가 되어 싸우면서 백성들의 이익과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는 월나라 사람들의 비척을 보듯이 하고 양주가 자신의 터럭하나를 아끼듯이 하니,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온 나라의 준장이라 할 지라도 실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우두머리이니 나라를 멸망시키고 집안을 멸망 시킴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무릇 우리 동포들이 다시는 공자의 글을 읽지 말고 학교의 교과에 따라 압제의 비루함을 개혁하여 개명한 신지식을 발하여 가까이 있는 세계 장황함과 멀리는 천지의 회명을 헤아린다면 富國強兵 化民復邦이 모두 그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²³⁾

22) 『石谷心書』, 〈心書附說, 重答李肅明〉, “世之學孔子書者 人人貪爭 家家讎敵 而信耶蘇者 人人慈愛 家家和睦(…) 何者 今人讀書者 居鄉則以武斷爲義 在官則以拮克爲禮 惟以黨色聲勢 爲衣食之長物 今東洋之罷弊殘亡 皆學孔子書之所致也”

석곡은 토로한다. 詩나 賦를 읊조리고 理나 氣를 말하면서 선현의 그림자만을 모방하는 사람이 賢哲인가, 黨을 세워 敵이 되고 원수가 되어 싸우면서 백성과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철인가를 반문한다. 이렇진댄 공자의 학문을 배우지 말자고까지 말한다.

왜냐면 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푸르름을 지닌 산과 유유히 흐르는 물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끊임 없이 자신을 수양하고 진리를 찾아가면서 修己를 통해 安百姓의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학문이 유학이기 때문이다. 곧, 유학이 지향하는 가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동사회 건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현재의 세상은, 그들이 내세운 현철은,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 공자의 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음의 글에서도 석곡의 비판은 이어진다.

“지금 동양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세력이 약해져 패하고 멸망함이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재주나 다른 견해가 있으면 곧 背師라고 배척하고 斯文亂賊이라 명명하면서 천하 뛰어난 인재들의 입을 틀어막고, 천하의 훌륭한 선비들의 재주를 끊어 버림이 이와 같으니, 훌륭한 선비들이 어디서부터 나올 것이며 뛰어난 인재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보전하겠습니까?”²⁴⁾

23) 『石谷心書』, 〈心書附說, 重答李肅明〉, “或曰 在百年前 我國文明 群賢輩出 彼人曰 何如則文明 何如則賢哲 曰詩曰賦 吟風弄月 是文明乎 說理說氣 摩影摸響 是賢哲乎 此皆不知人乘 不辨菽麥 非所以明心廣智 治國化民之術也 或奔競術鬻 義理都喪 或分門樹黨 讐敵鬪鬪 其於生民利病 國家安危 則視越人之肥瘠 而愛楊氏之一毛 此雖通國之尊 以實爲亂國之首 亡國之家 不亦宜乎 凡我同胞 無復讀孔子書 而徒學校科 則革其壓制之陋 發其開明之新知 近而世界之長闊 遠而天地之晦明 無不衡秤而尺度 富國強兵 化民復邦 皆在其中矣”

24) 『石谷心書』, 〈心書附說, 重答李肅明〉, “止今東洋大小國 羸敗滅亡 職由於此 何以致此 稍有異才異見 輒斥以背師 名曰 斯文亂賊 以鉅天下豪俊之口 以絕天下彥聖之才 如此 彥聖何從以出 豪俊何以保身 然則今日東洋之禍 實由於學士之不求多前人也”

석곡은 조선의 멸망이라는 재앙은 근원적으로 재주가 있는 사람을 키우지 않고 배척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斯文亂賊으로 몰고 가버리는 풍토에 있고, 훌륭한 선비나 뛰어난 인재들의 재주를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서로 서로 의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그들 중의 책임자가 있으면 도와주어서 앞선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덕목을 제시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愛]에 바탕을 둔 ‘仁’과 ‘恕’였다.

“지금 海內는 人道가 없고 천하에는 나라가 없으니 만약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고 나라로 하여금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하거든 인심의 화목함만 같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남을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함만 같은 것이 없어 이로써 전도된 동포를 구해야하니 저는 이 점을 슬퍼하여 성인의 본지를 밝히고자 하여 愛로써 인을 훈고하고 容으로써 恕를 훈고하여 성학의 대법을 드러내고, 육예로써 隸業을 삼아 만사에 수용함을 돕고, 心과 性을 하나의 物로 삼아 만 가지의 다름이 하나의 근본임을 말하고자 한다.”²⁵⁾

“저 불교와 예수교의 무리들은 사람마다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위주로 삼으나 유학의 선비들은 사람마다 서로 시기하고 마음을 적으로 삼아 이 때문에 불교와 야소교의 아래에 있으니 이것이 어찌 공자의 가르침의 본래 면목이겠는가? 예수가 愛字로써 예수교를 창도하고, 짐승을 교화하여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마침내 서양교화의 근원을 얻었으니, 이제 저는 끊어진 전통을 찾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고 나라로 하여금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기약하고자 한다.”²⁶⁾

25) 『石谷心書』, 〈心書附說, 與李汝敏 圭永〉, “今海內匪人天下無邦 若欲使人爲人國爲國 莫如人心和睦 莫如人人愛人如己 以濟同胞之顛倒 余悼於是 欲明聖人之本旨 以愛訓仁 以容訓恕 以著聖學之大法 以六藝爲隸業 以資萬事之酬應 以心性爲一物 以表萬殊之一本”

26) 『石谷心書』, 〈心書附說, 與李汝敏 圭永〉, “彼佛蘇之徒 人人相愛 以心爲主 以儒學之士 人人相猜 以心爲賊 由此觀之 儒者之術 反在於佛蘇之下 此豈孔子之教本面目乎 耶蘇以愛字倡教 欲化獸爲人 而死於十字之木 卒開西洋教化之源 今欲探已絕之緒

이상에서 보듯이 석곡이 진단한 조선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修己를 통해 安百姓하려던 공자의 마음을 이어받지 못했기에 있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였듯이 사랑[愛]만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말한다.

4. 만물을 생성하는 道, 仁

석곡이 세상을 달리한 후 그의 문인이었던 정만재²⁷⁾는 석곡선생을 이렇게 회상했다.

箕邦生長學周孔 기자 나라에서 생장해 주공과 공자를 배워
道德文章貫古今 도덕과 문장이 고금을 꿰뚫었지
擴關西人玄妙說 서양인의 오묘한 학설 논파하여 물리치고
折衷東哲異同心 동양철학의 다른 의견들 절충하였네.
明王不作誰宗道 밝은 임금도 일으키지 못하는데 누가 도를 세울 것이며,
正樂重修鮮解音 바른 음악 거둬 정비되지만 곡조를 아는 사람은 없네.
斯世哭公三代禮 이 시대가 선생을 통곡하는 것은, 삼대의 예를
質文損益自知深 본질과 형식을 가감할 줄 스스로 아셨기 때문이지.²⁸⁾

정만재에게서 석곡은 서양문물이 혼란하는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 공자의 학문을 배웠고, 도덕과 문장에서 뛰어났으며, 지동설을 비롯한 서양의 과학과 종교를 비판하고, 주자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래의 유연한 유학으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말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이 명을 달리하시니, 이젠 ‘본질과 형식에 들어맞는 삼대의 예를 행하는 분이 없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²⁹⁾

期使人爲人國爲國”

27) 정만재는 字가 亨伯이고, 號가 草廬로 석곡의 〈祭文〉을 지은 인물이다.

28) 『石谷散稿』, 〈又 門人 烏川 鄭萬載〉.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선의 유학자들은 예를 행한다고 하면서 외면만을 꾸미는 모습을 경계한다.

“오늘날 풍속은 儒士를 지목하여 늘 꿇어 앉아 있다는 의미의 膝土로 부른다. 사람들이 학문을 기꺼이 지향하지 않고 도가 널리 전파되지 않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니 내가 절실히 근심하는 바이다. 도는 마음을 보존함에 있고 형색에 드러내지 않으며, (...) 문학들은 부디 마음을 잡기에 힘쓰고 외면만 꾸미는 것을 힘쓰지 말라. 구차하고 어려운 것을 따르지 말고 배워서 간편한 방법을 따르라. 그렇게 한다면 일상의 모든 행동에서 도의 근원을 만날 것이다.”³⁰⁾

〈啓處〉라는 글에서의 ‘슬사’라는 말에서 지나치게 외양만을 꾸미는 조선 유학자들이 한심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두렵지 않습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주체님께 안타까워 합니다만, (...)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오로지 문장을 숭상하여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고 敬자만을 유독 주장하여 인도를 구하지 않았고, 박학에 힘쓰고 거친 것을 기록하면서 예로써 요약할 줄 모르고, 엄숙함만을 지켜 화락할 줄도 모르고, 계승할 줄도 모르고, 독서를 하여 자신도 모르게 춤이나올 만큼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나 꺼진 재와 같아 쓸 곳이 없고, 게다가 남과 나의 경계를 분명히 못하고 이기기를 좋아하고 잘난 체 합니다. 학문의 도가 어찌 참으로 이와 같단 말입니까? 봉당과 원수가 실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³¹⁾

석곡은 선비들이 독서는 하지 않고, 실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겉으로

29) 줄고, 「석곡 이규준의 시문을 통해서 본 학문과 현실인식」,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51, 2015.10. 54면 참조.

30) 『石谷心書』, 〈啓處〉, “今俗日儒士喚做膝土以道學委諸別人人之不肯嚮學道之不得廣傳未始不由於此愚切憫焉道在存心不以形色(...)惟蒙土 惟務操心 不務色莊 無從苟難 學而從簡易道 則坐立動靜 無適而不逢原”

31) 『石谷心書』, 〈心書附說, 答李肅明浚久〉, “可不懼哉 可不痛哉 妄有悼之 推原其由 罔非吾儒不善讀書之咎也 何者 專尙文辭 不做實事 偏主敬字 而不求仁道 務博記醜 而不知約禮 矜持嚴肅 而不知和樂 不知因乘 不知舞蹈”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에 개탄하고 있다. 결국 외양을 꾸미고 내면을 가꾸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학문이 침체 되는 데 이르고, 서로 싸움만을 일삼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다음의 글도 마찬가지로이다.

“오늘날 유자들은 전통과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예의와 음악을 잘 아지 못합니다.(...) 오직 격식을 갖춘 옷차림으로 오래도록 꿇어 앉아 理氣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高明하다 여기며 봉당을 통한 대립과 서로간의 견제를 가지고 閥閥이라 여깁니다. 성인의 가르침이 정말 이러한 것입니까?”³²⁾

“세유들은 大學의 주지가 ‘敬’ 한 글자에 있다고 여기지만, 천생이 생각하기에 도리어 大學의 주지는 ‘仁’ 한 글자에 있고, 이 ‘인’을 실행함이 誠입니다.”³³⁾

석곡은 예의와 음악을 알지 못하고 오직 격식을 갖춘 옷차림으로 오래 꿇어 앉아 있는 경직된 사람을 두고 고명하다 하고, 그들을 벌열이라 칭하는 사태를 꾸짖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의 중심된 가치는 ‘敬’이 아니라 ‘仁’이며, 仁을 실행하는 것이 ‘誠’임을 힘주어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誠을 깨치는 것이 가장 참된 공부임³⁴⁾을 강조한다.

다음의 글은 仁과 敬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仁은 마음을 보존하는 德이요, 敬은 사특함을 막는 方[방책]이다. 仁이란 사랑이니, 생성하는[살리는] 봄의 도요, 경이란 두려움이니, 여물게 하는[거두는] 가을의 도이다. 인은 성학의 주지요, 경은 인하도록 막아지키는 것이다. 인 없이 경하는 것은 아기를 잃고 강보만 쥐고 있고 작물을

32) 『石谷心書』, 〈心書附說, 答朴國斌 載憲〉, “今之儒者 不知因乘 不知禮樂 遠不知三辰五行之往來 近不知五藏耳目視聽 惟以盛服長跪 理氣是非 爲高明 以朋黨讐敵 壓制妒猜 爲閥閥 聖人之教 果如是乎”

33) 『石谷心書』, 〈心書附說, 答李肅明 浚久〉, “世儒以爲大學主旨 在敬一字 賤生却以爲大學主旨 在仁一字 而所以行之者誠也”

34) 『石谷散稿』, 〈輓大岩孫先生〉, “(...)眞工專主誠明教 每藝能通三百藝 珠藏深澤無人採 蘭在幽林只自知”

버리고 호미만 잡고 있는 것과 같다. 가을만 있고 봄이 없으면 생생의 도는 없게 될 것이다.” 이에 감히 인으로 학문의 목적을 삼고, 경으로 입도의 방편을 삼아 너그러움과 반듯함[엄숙함]이 서로 보완하고, 긴장과 이완이 상호작용을 하여야 지, 경자를 버리고 인애를 오로지 하여야 한다고 말하진 않았습다. (...) 인이란 찬연히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덕이고, 경이란 엄숙히 검속하는 이름입니다. (...) 경이 존양성찰할 수 있는 것은 곧 인의 본체요, 인이 유행할 수 있는 것은 곧 경의 공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仁敬合一이 되는 묘리입니다. 인과 경이 서로 도움이 되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규준의 본의입니다.³⁵⁾

석곡은 仁을 德으로 여겼고, 만물을 생성하는 道로 여겼다. 그리고 敬은 사특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방책으로, 仁을 더욱 단단히 여물게 하는 道로써 인식했다. 그러면서 인을 바탕으로 한 敬이 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敬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어야 함을 말하면서 仁과 敬은 상보적인 것으로 서로 합일을 이루어서 실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誠임을 말하고 있다. 곧 실천의 가치로서의 誠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완전체로서의 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념에서 볼 때, 誠과 敬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이다. 하지만 주자 성리학이 理氣論을 말하면서 敬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誠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 결과는 현실정치의 혼란과 민심의 피폐함으로 나타났다.

“봄이 갈 무렵 봄옷이 마련되면 대여섯 명의 청년과 예일곱 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기우제를 하는 舞雩에서 바람이나 쇠고 노래를 부르고 돌아오겠습니다.”하니, 공자께서 “아! 나도 점의 생각과 같다.³⁶⁾

35) 『石谷心書』, 〈心書附設 答朴國斌 載憲〉, “以爲仁爲存心之德 敬爲閑邪之方 仁者愛 生春之道也 敬者畏 收秋之道也 仁是聖學之主旨 敬是爲仁之防衛 無仁而持敬 猶遺兒而提繩 不稼而持鋤也 有秋而無春 生之道息矣 乃敢以仁爲學問之目的 以敬爲入道之方便 寬敬交濟 張弛互用 未嘗有去了 敬字而專主仁愛之言也(...) 仁之本體 仁之流行 實敬之功用 此仁敬之所以合一之妙也 夫仁敬相資爲用 卽峻之本意也”

36) 『論語』, 〈先進〉, “子路曾皙冉有公西華 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 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子路 率爾而對曰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加之師旅 因之以饑饉 由也 爲之 比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 夫子哂之 求爾 何如 對曰

공자가 제자들에게 성인의 경지에 놓여 있는 이의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이 이야기는 성인의 광대무변하여 사물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포용성, 그런 가운데 자연과의 합일 속에서 누리는 삶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공자가 “無爲로 다스리는 자는 저 舜이던가”³⁷⁾라고 하여 순의 정치를 ‘무위정치’라고도 한 것도 “크도다! 성인의 도여”³⁸⁾에 대한 정치적 실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대개 ‘無爲’는 ‘有爲’나 ‘人爲’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굳이 ‘성·경’의 개념에 비추어 대비해 본다면, ‘무위’는 ‘誠’으로, ‘유위’는 ‘敬’으로 보아, 위에서 말한 ‘성인의 도’= ‘무위’ = ‘誠’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무위의 개념은 ‘유위’인 ‘인의예지’를 통해 이루어진 ‘仁’의 상태와 같은 것이다. 이 ‘인’은 바로 유학이 최고로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간인 ‘군자’가 갖추어야할 모습인 것이다.³⁹⁾

군자가 만들어가는 세상, 인이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정치, 석곡은 조선의 선비들이 有爲의 敬에 치우치면서, 無爲의 誠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음을 말하면서 仁의 가치가 그 본원에 자리하길 바랐다.

5. 仁恕로 만들어가는 세상, 萬物同體

40세가 되던 해에 석곡은 식동재를 만들고, 서당을 열어 글을 가르친다. 그

方六七十 如五六十 求也爲之 比及三年 可使足民 如其禮樂 以俟君子 赤爾何如 對曰 非曰能之 願學焉 宗廟之事 如會同 端章甫 願爲小相焉 點爾 何如 鼓瑟希 鏗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莫春者 春服 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 喟然嘆曰 吾與點也”

37) 『論語』, 〈衛靈公〉, “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38) 『中庸』, “大哉 聖人之道 洋洋乎 發育萬物 峻極于天 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

39) 申相珠, 「水雲 崔濟愚의 誠敬論과 文學的 實現樣相 研究」,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12. 86면.

석곡서당의 〈학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聖學의 큰 뜻은 明心과 博愛로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忠信 孝悌하세. 六藝를 극진히 하면 萬物이 同體로다. 오직 誠이 그치지 않게 되면 만고에 찬연하리라”⁴⁰⁾

學規는 서원이나 서당을 운영하는 선생의 교육의 지향점을 적은 것으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공부하는 학생이 지키고 따라야 할 태도를 규정한 지침이다. 석곡서당의 학규에서 석곡은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적 지향점이 明心과 博愛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명심과 박애를 구현하는 키워드로 畏天과 懷罪, 그리고 忠信과 孝悌를 들고 있다. 나아가 萬物同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六藝’를 고루 익혀 ‘誠’의 가치를 체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곡이 유학의 요체라 언급한 ‘명심’과 박애는 실제 『석곡심서』의 여러 곳에서 物我同體, 萬物同體, 一本不息, 一本而萬殊, 物我同胞 등과 함께 언급된다.

“학문의 도는 明心일 따름입니다. 明心の 道는 오직 ‘忠信’을 주로 한다. 仁에 의지한다. 藝에 노닌다.’ 이 세 구절일 따름입니다. 후대에 文學이 성해질수록 心術이 점점 잘못되어 변려문이 일어남에 六藝가 없어지고 봉당이 흥기함에 忠愆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마다 다두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⁴¹⁾

석곡은 학문의 도를 ‘명심’에 두고 명심을 하기 위한 덕목을 충신과 인, 그리고 욕에 두고 있다.

40) 『石谷心書』, 〈石谷書堂學規〉, “聖學主旨 明心博愛 畏天懷罪 忠信孝悌 六藝盡制 萬物同體 惟誠不死 萬古昭晰”

41) 『石谷心書』, 〈心書附說, 答李肅明[浚久]〉, “學問之道 明心而已 明心之道 惟曰主忠信 依於仁 游於藝 三句而已 後世文學愈盛 心術愈非 駢驢作而六藝亡 朋黨興而忠愆亡 未及人人矜爭 家家讐敵(...) 可不痛哉”

“가만히 보건대 『육경』과 『논어』의 글들은 만물동체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道는 忠信이고 그 방법은 禮樂과 六藝이며, 그 요점은 一本은 不息(그침이 없다)으로서 仁과 恕가 주가 됩니다. (...) 이는 博愛와 並生の 道입니다.”⁴²⁾

석곡은 육경을 비롯한 논어의 글들을 한마디로 이야기 할 때, 그것은 萬物 同體이며, 만물이 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忠과 信이며, 충과 신은 사랑[仁]과 용서[恕]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이 박애와 並生の 道가 된다고 하였다.

다음의 글을 보자.

“仁恕(어짊과 너그름)는 만물이 생겨나는 봄의 이치이므로 친애하여 남을 이롭게 하고, 敬義(공경과 의로움)는 만물을 거두는 가을의 상과 같으므로 수렴하여 자신을 바르게 합니다. 敬이란 사악함을 막는 호위병이지 도덕의 주인은 아닙니다. 경을 주장하여 인을 망각한다면 가을만 있고 봄은 없어서 生生の 道가 종식될 것입니다.”⁴³⁾

“지금 사람들이 仁과 恕로써 好惡의 마땅한 이치로 삼아 세상 사람들의 질투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권세를 열어주고, 장래함으로써 학문하는 주지로 삼아 세상 사람들의 백치 같고 남과 단절하는 일을 도와주고, 心과 性を 理와 氣의 두 개의 물로 간주하여 한쪽에는 理氣互發이라 하고 한쪽에서는 理死氣活이라 합니다. 이에 문이 나뉘고 길이 갈라져 봉당을 이루어 서로 원수가 될 뿐이니 일찍이 나라와 백성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⁴⁴⁾

42) 『石谷心書』, 〈與李汝敏 圭永〉, “窃觀六經論語之書 不出於萬物同體欲并生底意也 其道忠信 其術禮樂六藝 其要一本不息 而仁恕爲主 仁者愛人如己也 恕者容人如己也 (...) 此乃博愛並生之道也”

43) 『石谷心書』, 〈心書附說, 答李肅明[浚久]〉, “寬仁者 春生之道 故親愛而利人 敬義者 秋收之象也 故收斂而正己 夫敬者 閉邪之衛也 非道德之主也 主敬而忘仁 有秋而無春 生生之道息”

44) 『石谷心書』, 〈心書附說, 與李汝敏 圭永〉, “今人以仁恕爲好惡當理 以啓時人嫉妒好殺之權 以長跪爲學問之主旨 以資時人白癡絕物之業 以心性看作理氣二物 一曰理氣互發 一曰理死氣活 於是分門異路 朋黨讐敵而已”

“仁이란 남을 사랑하고 恕란 남을 용납함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어진 이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세워주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해 준다고 하였고, 또 말씀하시길 충과 서가 도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자신에게 베풀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또한 남에게 베풀지 말라하셨으니 이는 사랑할 줄 알면 남을 살리고, 포용할 줄 알면 남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⁴⁵⁾

仁和 恕가 남을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덕목으로, 仁을 우선으로 한다면 남을 살리고, 해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가을의 덕목인 경과 의보다는 봄의 덕목인 인과 서를 근본으로 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과 서가 物我同體, 萬物同體의 근원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

恕-> 守放心-> 去惡 -> 善 = 元 = 仁

“몸을 닦되 경으로써 해야 한다는 것은 인을 실행하는 법칙이요,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바로 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기복례도 인의 본지를 말한 것입니다.己는 자신을 사사롭게 함을 일컫는 것이고, 禮는 남을 편안하게 하는 범절이며, 仁은 남을 사랑하는 덕이니 자신을 사사롭게 하지 않으면서 남을 편하게 함이 남을 사랑하는 덕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인에 귀의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物我同體의 효과를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⁴⁶⁾

“맹자께서 군자는 인으로써 마음에 두고 예로써 마음에 두니 인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며 예가 있는 사람은 남을 공경한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인이 마음을 보존하는 재료이고 경이 마음을 보존하는 도구라는 말입니다.”⁴⁷⁾

45) 『石谷心書』, 〈心書附說, 答李肅明 浚久〉, “仁者愛人也 恕者容人也”
 46) 『石谷心書』, 〈心書附說, 重答李肅明〉, “夫修己以敬者 爲仁之則也 至修己以安百姓 乃所謂仁也 克己復禮爲仁 此乃言仁之本旨也 己者私我之稱 禮者安人之節 仁則愛人之德 私我則害人 害人則不仁 無我安人 是乃愛人之德也 故曰天下歸仁 此非謂物我同體之效也”
 47) 『石谷心書』, 〈心書附說, 重答李肅明〉, “孟子曰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仁者愛人也 禮者敬人也 此亦言仁爲存心之材 敬爲存心之具也”

“인으로써 학문의 목적을 삼고 경으로써 도에 들어가는 방편으로 삼아서 너그러움과 공경을 잘 조화시키고 긴장과 이완을 잘 적용하십시오. 애초에 경자를 제거하고서 오로지 인도만을 취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⁴⁸⁾

이상에서 석곡은 학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명심과 박애를 가로막는 것으로 敬을 들고 있다. 선비들이 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을 인으로 여기면서, 경을 인의 앞에 두게 되면서, 통섭적이고 유연한 사유가 막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심과 성, 이와 기를 두 개의 물로 간주하게 되고, 봉당이 고착화되어 결국 원수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곧,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인과 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였다.

6. 理와 氣, 性과 情을 포함한 개념, 心

『석곡심서』의 〈성문〉과 〈외필론〉, 그리고 『심서부설』의 글 속에서 석곡 心學의 대강을 살필 수 있다. 석곡은 심과 성을 구분하지 않고 이와 기를 나누지 않았다.

마음은 태어난 뒤에 몸을 주관하는 것으로 마음에서 물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 정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심은 발하지 않은 상태의 것과 발한 상태의 것을 모두 말하는데, 발하지 않은 상태를 도심, 발한 후의 마음을 인심이라고 하였다.

“학문을 잘하는 자는 부디 朋黨의 학문을 하지 말고 忠恕의 학문을 따라라. 성리학이라 말하지 말고 심학이라 말해라. 심과 성은 한 가지 물건이고 이와 기

48) 『石谷心書』, 〈心書附說, 重答李肅明〉, “仁爲學問之目的 以敬爲人道之方便 寬敬相濟 張弛互用爾 初無去了敬字 以專取仁道之語也”

는 한 덩어리이다. 구하면 얻고 놓으면 잃으니, 마음이 보존되면 性命의 이치를 얻어 알 수 있을 것이다. (맹자께서) 성을 논할 때 심이란 한 글자를 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심과 성이 과연 두 가지 물건이겠는가? 性은 心의 근본이고, 理란 氣의 표준이다. 심과 성은 일물이고 이와 기는 합체이다.”⁴⁹⁾

“天道가 나에게 부여한 것을 命이라 하고, 사물과 사람이 받아서 태어나는 것을 性이라 한다. 태어난 뒤에 몸을 주관하는 것을 心이라 하고 마음에서 발발하여 나간 것을 情이라 한다. 이는 모두 한 가지 물건인데 상황에 따라 달리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⁵⁰⁾

“세유들은 심과 성을 두 가지 물로 간주하니 하나는 이기호발설이고 다른 하나는 성사심활설입니다. 이와 기가 상호 발한다면 하나의 몸에 두 개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까? 성이 죽은 물건이고 심이 산 물건이라면 맹자가 주장한 성선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심과 성은 하나의 물이고 이와 기는 하나의 체이니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백체가 있고 백체는 하나의 주인이 있으니 그 주인이 바로 마음입니다. 무릇 마음은 하나일 뿐인데, 나누어 말하면 마음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성이라 하고 이미 발한 것을 정이라고 하고 심은 아직 발하지 않은 것과 이미 발한 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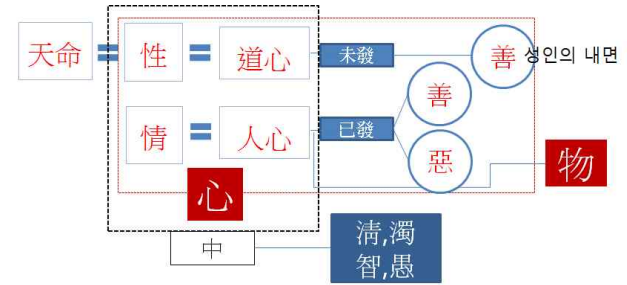
사람이 태어날 때 형상이 다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이며,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은 평등한 것이다. 하지만 이 마음은 물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때 생겨나는 것이 칠정이 되고, 칠정이 혈기를 따르게 되면(마음이 오장에 따르게 되면) 더럽혀져 악이 되고, 칠정(마음)이 오장을 제어하

49) 『石谷心書』, 〈性問〉, “善學者 其無從朋黨學 而從忠恕學 無曰性理學 而曰心學 心性一物 理氣合體 求則得 舍則失之 心存則性命之理可得而知矣(...) 論性不越乎心之一字 則心與性 果二物乎 性者心之本也 理者氣之則也 心性一物 而理氣合體”

50) 『石谷心書』, 〈猥筆論〉, “天道賦予之謂命 人物稟生之謂性 生後主身之謂心 自心發出之謂情 一物而隨名耳(...) 賦於人物也 萬殊爲形 一本在中 萬殊爲形 故不能清濁智愚不齊 一本在中 故堯舜至於塗人一也(...)”

51) 『石谷心書』, 〈心書附說, 答李肅明[浚久]〉, “世儒以心性 看作二物 一曰理氣互發 一曰性死心活 理氣互發 則一身有二本耶 性死心活 則何有貴於性善耶 心性一物 理氣合體 何者 人身有百體 百體有一主 其主心也 夫心一而已 分而言之 則未發謂之性 已發謂之情 心乃未發已發之總名”

면 선이 된다고 하였다. 곧 선악은 정이 혈기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선과 악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이 부여될 때 만 가지로 형상이 다르지만 一本이 中에 있다. 만 가지로 형상이 다른 까닭에 청탁과 지우에서 불평등함이 없을 수 없지만 일본이 중에 있기 때문에 요순임금으로부터 향간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까지 모두가 같은 것이다. (...) 중이란 마음이다. 마음은 본디 형체가 없이 혈육의 오장 속에 놓여 있다. 마음이 고요할 때엔 맑은 상태의 천도이다가 사물에 감동되어 동할 때엔 반드시 형체를 통해 나타난다. 이때 혈육의 오장이 일에 작용하면 칠정에 생겨나고 마음이 오장의 혈기를 따르면 더럽혀져 악이 된다. 반대로 마음이 오장을 제어하면 곧게 나와서 선이 된다. 무릇 마음이란 하나일 뿐이다. 그것이 사람의 신체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발한 상태를 인심이라 하고 그것이 천도에 근본하기 때문에 발하지 않은 상태를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체에서 생겨난 것은 사사롭기 쉽고 공변되기 어려우며 형이상의 도체는 은미하고 미묘하여 보기 어렵다. 까닭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는 분별이 있게 된 것일 뿐이다. 성인은 표면보다 내면을 따르고 본을 주로 삼고 중심을 안정시킨다. 까닭에 오직 정미하고 오직 한결 같아 진실로 그 중을 잡는 다 하였으니 동할 때에도 그 본체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다.”⁵²⁾

52) 『石谷心書』, 〈猥筆論〉, “中者心也 心本無形舍於血肉之藏心之靜也粹然天道及其感物而動也 必由乎形於是五藏用事而七情生焉 心循五藏則掩汚而爲惡心制五藏則直出而爲善夫心一而已 而以其出乎人身故已發謂之人心 以其本乎天道 故未發謂之道心生於身者 易私難公 形而上者 隱妙難見 所以有惟危微之分爾 聖人舍表而從裡 主本而定中 故曰惟精惟一允執厥中 言動不失其本也”

따라서 석곡의 심학은 이와 기를, 성과 정을 포함하는 통섭적 개념으로서의 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론은 “心卽理라는 세 글자는 제 마음에 얼음 녹듯 이해되는 듯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항상 심과 성은 동일한 하나이고, 이와 기는 한 몸이라 여겼습니다.”⁵³⁾에서의 ‘심즉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르게 된다.

7. 나오는 말

이상 석곡의 학문이유와 철학적 지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석곡의 학문은 나라의 혼란의 문제에 천착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다. “인으로써 성학의 목적을 삼으며, 충서로 마음을 세우는 주된 근본으로 삼으며, 예악으로 학문하는 사무로 삼으며, 경으로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삼았고, 그리고 수렴하여 지키고, 무도하여 펼치고, 계산하여 헤아리고, 화순하여 요약하였는데, 그 요체는 남과 내가 사이가 없는 것이고, 만물이 하나의 체란 것이고, 인간의 일에서 배워 천리를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⁵⁴⁾는 그의 생각은 자신이 지향하는 학문의 목적이었으며, 이것의 지향은 바로 인애동포설, 물아동체설이었다.

이같은 석곡의 철학적 지향을 살피기 위해서 석곡이 살았던 시기를 관통하는 어려움에 주목하고, 유학이 지향하는 앎[知]에 대한 물음과, 문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格物致知에 대한 석곡의 견해를 우선 살펴보았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키워드로 내세우는 사랑[愛]의 가치와, 만물을 생성하는 도리로서의 인의 가치, 그리고 석곡이 주장하는 만물동체의 세상과

리와 氣, 性과 情을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心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석곡의 心論은 格物致知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냈다. 석곡은 주자의 견해를 부정하고, 어려운 사물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스로의 견해를 지키고 자득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른 것임을 말하였다.

격물치지에 대한 석곡의 인식은 그의 학문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석곡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학문에 대한 부정과, 만물을 생성하는 道로서의 仁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만물동체로 나아가고, 만물동체는 이와 기를 성과 정을 포함하는 통섭적 개념으로서의 心과 맥락이 닿아 있었다.

53) 『石谷散稿』, 〈上參贊郭侁宇先生〉, “惟心卽理三字 於私心似有渙然者 何者 峻嘗(…)心性一物 理氣合體”

54) 『石谷心書』, 〈心書附說, 答李肅明[浚久]〉, “以仁爲聖學之目的 以忠恕爲本心之主本 以禮樂爲學文之事務 以敬爲入道之方便 於是乎 收斂以持之 舞蹈以宜之 乘除以度之 和順以要之 其要 物我無間萬物同體 下學而上達 此心學之目的

[Abstract]

Seokgok, Kyu Jun Lee's academic and philosophical orientation

Shin Sang-goo

Seokgok is the person who experienced the end of Joseon and the beginning of the Korean Empire as whole body. He was sad about the ruined appearance of Joseon, aware of the problems Joseon had, and was extremely sick about the hard life of the people.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iculties that pass through the period when the Seokgok lived, The question of knowledge, which is aimed at new studying, I first look at the viewpoint of Seokgok about the poetry theory 格物致知(learning the downward human affairs and knowing the meaning of the sky deeply) that takes place in the process of looking into the problem, Next, the value of love [love] as a keyword in the process of change and innovation, the value of a person as a creator of all things, And I have studied about the world of the body of all objects, the theory, the spirits, and the perception of the mind as a concept including the sex and feeling, which the Seogok claims.

The study and philosophical thought of Seokgok is mainly concentrated on "Seokgok Sango", "Seongok Shimseo"(石谷散稿』 and 『石谷心書="Oriental medicine and the Oriental medicine book"). The study and philosophical thinking of the Seogok are mainly concentrated on the "Seokgok Sanggo", "Seokgok", "Oriental Medicine aor Oriental Medicine"(萬物同體說 or, 格物致知). All of the views on the theory of(萬物同體說) or 格物致知 and the mind of the stone are all revealed through these books.

The theory of 理氣論, 心論(the theory of the mind) and 格物致知 of Seogok reveals the difference from the recognition of the superstition. Seokgok does not recognize the Juja's view of the 格物致知.

He said that it is right to not try to study difficult things, to keep his own opinion, and to practice what he has achieved. This idea of the Seokgok means that 格物致知 does not resemble stuff, but that it is in the self.

The perception of the Seokgok to the 格物致知 is the most important value that dominates his entire discipline. Seokgok is extended to negative thoughts

about learning that do not love people and to thinking about patience as a way of generating all things.

And these thoughts go to the 萬物同體 and the 萬物同體 touches the mind and context as a consensus concept that includes the theory and the spirits, the sex and feeling.

Key words: 格物致知, 愛, 仁, 萬物同體, 心, 石谷心書, 心書附說, 石谷散稿

참고문헌

□ 기본자료

李圭峻, 『經髓三篇』, 목판본, 서울대 규장각 소장.

이규준, 『石谷心書』, 중앙도서관 소장, 1922.

이규준, 『石谷散稿』, 『한국역대문집총서』, 경인문화사, 1999.

한국한의학연구원 역,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 29,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 2009.

□ 논문

김교빈, 조선후기 주자학과 양명학의 논쟁:정제두와 박세채·윤증·민이승·박심·최석정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사연구회, 『시대와 철학』 19, 1999. 199-228면.

김승영, 「17세기 격물치지론에 대한 분석」-김장생·정경세·윤휴를 중심으로,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36, 2005.6. 315-338면.

성호준, 「조선후기 석곡 이규준의 유학과 의학」, 『동양철학연구』 60, 2009, 109-132면.

신상구, 「수운 최제우의 성경론과 문학적 실현양상 연구」,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12.

신상구, 「석곡 이규준의 시문을 통해서 본 학문과 현실인식」,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51, 2015.10. 47-74면.

이명환, 「주자의 격물치지론 연구」, 한국중국학회, 『국제중국학연구』 54, 2006. 467-498면.

정상봉, 「주희의 격물치지와 경공부」, 한국철학회, 『철학』 61, 1999. 5-25면.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5일 접수되어 12월 07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7일 게재 확정됨.